

국제유가 급락... 한국경제 기운 차릴까

WTI 선물가 배럴당 122.19달러까지 하락 고유가 압박 벗어나 하반기 경제운용 '숨통'

이란 핵 문제 등 변수... 하락 전환 판단 아직 일러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선으로 급락하면서 그동안 고유가 압박에 시달려온 우리 경제가 좀 기운을 차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번지고 있다.

정부가 올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짜면서 전제조건으로 국제유가 수준에 실제 유가가 접근하면서 여러 거시경제 목표의 달성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의 유가하락이 세계적인 경기불황에 따른 석유 수요감소가 결정적인 데다 아직 지정학적 요인이나 허리케인 변수 등이 남

있었다며 선부터 낙관을 경계했다.

◇국제유가, 정부 전망치까지 떨어져 =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의 전제는 국제 유가의 경우 중동산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올해 연평균 110달러였다. 하반기로만 따지면 120달러다. 엄격히 계산하면 상반기 평균이 104달러 수준이었기 때문에 연평균 110달러가 되려면 하반기에 116달러까지 떨어져야 한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서부 텍사스산원유(WTI) 선물가격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배럴당 145.78달러를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서 29일에는 122.19달러까지 내려 보름 만에 배럴당 23.59달러 급락했다. 장중 한때 배럴당 120.75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두바이유는 일반적으로 WTI에 비해 거래가가 5달러 가량 낮기 때문에 WTI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 두바이 가격은 점차 하락요인을 반영, 조만간 116달러에 근접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유가 급등세를 부추겼던 투기자금들이 최근 석유제품 수요

감소에 무게를 두면서 투자전략을 바꾸고 있어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에 숨통”... “낙관은 일러” = 전문 연구기관들은 국제 유가가 10% 떨어지면 경제성장률은 0.2~0.3%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유가하락을 좋은 소식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유가상승 국면이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보기 어렵다. 세계 경기의 둔화 위험이 부각된 만큼 상황을 낙관하기 이르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정부 당국도 잠시나마 숨 돌릴 여유를 찾고 있다”며 “다만 세계 경제의 둔화라는 또 다른 악재가 부각되고 있는 만큼 마음을 놓기는 어려운 국면”이라고 말했다.

◇“유가하락 전환 판단은 시기상조” = 국제 유가가 하락세로 완전히 돌아섰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따르면 7월 넷째 주(22일 기준) NYMEX의 투기자금 순매수포지션(윤선 포함)은 7만3천계약으로 전주에 비해 17% 줄었고 올해 최고치였던 2월의 15만7천계약에 비해서는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국제금융센터 오정석 부장은 “선물계약만 보면 순매수포지션으로 전환됐고 순매수 포지션이 크게 줄어 투기세력들은 이익실현에 나서면서 유가 하락을 점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란 핵 문제와 나이지리아의 무장세력 등 지정학적 위험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허리케인 시즌을 앞두고 있는 등 유가가 다시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올 먹을거리 적자 150억달러 넘을듯

수요 급증... 반도체 흑자의 두배

세계 곡물가격이 폭등하고 수입 먹을거리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농·축·수산물 무역 적자규모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30일 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시스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상반기 97억990만달러(1천511만)어치 농·축·수산물을 수입하고 20억1천307만달러(976만)어치를 수출, 결과적으로 76억9천683만달러의 적자를 봤다. 이같은 적자 규모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총 메모리 반도체 무역흑자(40억8천863만달러)의 거의 두배 수준이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수입과 수출이 각각 20.9%, 22.0% 늘고 적자가 20.6%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연간 농·축·수산물 적자는 ▲2003년 74억7천881만달러 ▲2004년 82억6천277만달러 ▲2005년 88억7천920만달러 ▲2006년 103억6천853만달러 ▲2007년 127억5천313만달러 등으로 해마다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상반기까지 추세대로라면 올해 적자는 154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 상반기 농·축·수산물 수입액 증가율(20.9%)은 수입량 증가율(3.2%)의 약 7배에 이른다. 주요 곡물 등의 도입단가가 치솟아 적자가 커졌다는 예기다. 단적인 예로 곡류의 경우 수입(671만)이 물량 기준으로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불과 4.3% 늘었으나, 수입액(23억6천487만달러)은 65.0%나 급증했다. 옥수수·밀·콩 등의 주요 곡물 가격이 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이다.

단일품목 수입액 1~2위인 옥수수(15억1천961만달러), 밀(6억4천222만달러)과 밀가루(2천230만달러)만 따져도 수입액 증가율이 각각 68.0%, 74.5%, 91.1%에 달했다.

이밖에 채소류와 주(酒)류, 과일류, 수산물 수입도 각각 11.1%, 16.8%, 2.7%, 4.0% 늘었다. 반면 축산물의 경우 수입량과 금액이 각각 15.7%, 5.7% 오히려 줄었다. /연합뉴스

경유값 두달만에 ㄹ 당 1,900원 아래로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경유의 전국 평균 가격이 2개월 만에 ㄹ 당 1천900원선 아래로 내려갔다.

30일 석유공사의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가격을 공개한 주유소 9천700여곳의 평균 경유값은 ㄹ 당 1천889.01원으로 5월30일(1천892.17원) 이후 처음으로 1천800원대를 기록했다. 경유값은 이달 17일 ㄹ 당 1천947.75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13일 만에 ㄹ 당 49.74원 급락했다.

이날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ㄹ 당 1천902.25원으로 전날보다 ㄹ 당 2.94원 하락했다. 휘발유값 역시 17일 ㄹ 당 1천950.02원까지 올랐지만 13일 만에 ㄹ 당 47.77원 내렸다.

국제 석유제품가격은 7월 첫째 주부터 3주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으며 국제 상황을 2주일 가량 시차를 두고 반영하는 점을 감안할 때 휘발유 값도 조만간 ㄹ 당 1천900원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여름철 대표적인 과일 중 하나인 자두가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식품관에서는 단맛이 뛰어난 국내산 자두 1kg을 6천8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석유·사교육 등 5대 민생업종 담합 등 불공정거래 혐의 포착

공정위 “상습 위반업체 퇴출 등 일벌백계”

공정거래위원회 이동훈 사무처장은 30일 석유와 사교육, 자동차, 이동통신, 의료 등 5대 민생업종에 대한 담합 등 불공정 거래 조사와 관련, “상당한 혐의가 포착됐다”며 “금년 안에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MBC TV에 출연해 “이들 5대 업종을 감시하면서 서면조사도 벌였다”며 “현재 대부분 업종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3개 대형 백화점이 납품업체와 입점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에 대해 “조사는 했고 조만간 전원의 혐의(제재 안건)를 상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소비자원이 최근 18개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와 그 원인을 발표했다”며 “국내 가격이 높은 것과 관련해 담합이나 재판매 가격의 유지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했다”고 말했다. 재판

매가격 유지는 수입 또는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에게 일정한 가격 아래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처장은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업체는 레드 카드를 받은 선수를 경기장에서 퇴장시키듯이 퇴출당할 정도로 일벌백계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관련규정을 정비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구두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근절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서면미고부 하도급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구두발주 추방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연합뉴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논란 재점화

영세업자 “낮추기 위한 법적장치 필요” Vs 금융당국 “시장 자율에 맡겨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영세 사업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문제를 놓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영세업자와 정치권 일각에선 수수료를 낮춰야 하고 이를 위한 법적장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30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과 민주당 장재환 의원은 최근 영세업자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여신전

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두 법안은 차별적인 수수료 부과를 막기 위해 금융위가 수수료 원가산정을 위한 표준안을 만들고 카드사들이 이를 토대로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업계에선 이미 상당부분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 추가 인하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법적 강제수단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수수료를 낮추는 것은 시장논리에 반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신용판매 부문에서 버는 이익은 크지 않다”면서 “추가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경우 연회비나 현금서비스 수수료 인상, 부가서비스 축소 등 회원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는 시장 논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가격 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LPG값 내릴까 말까

업계 내달 결정 앞두고 고민

액화석유가스(LPG)업계가 내달 LPG공급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30일 LPG업계에 따르면 LPG를 국내 수입해 공급하는 SK가스과 E1 등은 이르면 이날, 늦어도 31일에 다음달에 공급할 LPG가격을 결정해 각 충전소에 통보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6월과 7월 두달 연속 큰 폭으로 LPG공급가격을 인상해 소비자의 원망을 산데다 물가안정에 힘쓰고 있는 정부의 심기를 건드린 탓에 선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수입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공급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환율측면에서는 최근 환율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며서 국내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인상여부를 쉽사리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LPG수입사의 한 관계자는 “회사의 입장은 가능한 가격인상을 억제한다는 방침이지만 시장상황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최종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LPG업계는 LPG수입가격 인상을 이유로 국내 공급 LPG가격을 6월에 이어 7월에도 올렸었다. 7월에 SK가스는 프로판가스는 kg당 62원 오른 1천315원에, 부탄가스는 74원 오른 1천685원에 각 충전소에 공급하고 있다. E1도 프로판가스는 kg당 62원 인상된 1천313원으로, 부탄가스는 69원 오른 1천685원으로 인상했었다. /연합뉴스

은행 대출금리 다시 7%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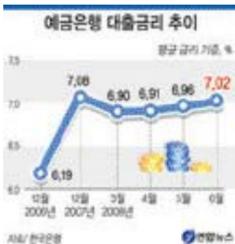
6월중 연 7.02% 전달보다 0.06%P ↑

지난 6월에 예금은행 대출금리가 5개월만에 연 7%를 넘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6월중 금융기관 가중 평균금리 동향’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으론 예금은행의 대출 평균금리는 연 7.02%로 전월의 6.96%에 비해 0.06%포인트 올랐다.

대출금리가 7%를 넘은 것은 지난 1월의 7.2%이후 처음이다. 대출금리는 2월과 3월 각 6.90%, 4월 6.91%, 5월 6.96% 등이었다.

대출금리 가운데 대기업에 적용된 금리는 6.53%로 전월의 6.39%에 비해 0.14%포인트 올랐고 중소기업은 7.14%에서 7.21%로 0.07%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6.95%에서 6.93%로 내려갔으며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0.02%포인트 떨어진 6.77%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공동주택 공급량 전달보다 32% 급감

7월 1만9천여가구 분양

7월에 분양에 들어간 공동주택이 2만 가구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해양부는 7월에 분양을 시작한 공동주택이 1만9천590가구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6월에 비해 9천112가구, 31.7% 감소한 것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작년 말에 집중적으로 분양승인신청했던 물량들이 대부분 소진된 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 들어 월간 분양 물량이 2만가구 아래로 떨어진 것은 설 연휴가 있었던 2

월 이후 처음이다.

7월에는 수도권에서 7천603가구, 지방에서 1만1천987가구가 분양됐다. 주택유형별로는 분양 1만460가구, 임대 8천141가구, 재건축·재개발 989가구 등이었다.

1~7월 분양 누계는 16만3천917가구로 작년 동기보다 18%가량 늘었다. 수도권(8만2천413가구)이 36% 증가한 반면 지방(8만1천504가구)은 4.1% 감소했다. 8월 분양 예정인 물량은 수도권 1만4천817가구를 포함해 총 2만4천295가구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오토하우스(자동차용품전문유통인점)	카인테리어 장차기사 정규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01	062-362-7288
(주)태성건설	건축산업기사(현장소장) 및 경리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2500	08/01	062-381-1151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계약직원 (기스관련 경력자)	대졸/경력3년	1800~2000	08/01	062-230-6202
(주)골드라인	경리, 사무보조 여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8/02	062-953-0555
ok웨딩클럽 광주센터	[OK웨딩클럽 광주센터] 웨딩플래너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04	062-223-0805
에너그린(주)광주점	경리업무 담당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04	062-943-8802
동부회재 광주 고객센터	동부회재 직영 TC텔레마케터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06	062-229-5041
씨에이치솔루션(주)	(주5일/고정급152만) SK텔레콤 CRM 멀티상담원	고졸/경력무관	2400~2600	08/07	02-456-9799
명신상사	배송 및 창고관리 사원	고졸/경력무관	2000~2200	08/07	062-374-5383
유한회사 태호	건축, 기계설비캐드기사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8/07	062-943-7997
롯데쇼핑(주)롯데시네마	롯데시네마 광주관 슈퍼바이저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08	02-3470-3424
에이스산업	전자부품 조립, 검사, 기공 생산직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8/08	062-959-1971
장원교육문화(주)	[광주/전남]친절한 장원선생님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08/08	062-515-1400

(광주직접코리아 512-6210 제공)